



| | | | | |
|---|----------------|--|-------------------------|--|
|  인천광역시 | | 보 도 자 료 | |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
| | | 배포일자 | 2022년 12월 8일(목) 총 2매 | |
| 담당 부서 | 제물포르네상스 기획단 | 담당자 | • 제물포르네상스소통담당 • 담당자 | 조소영 ☎458-7321 차지연 ☎458-7326 |
| 사진(이미지) |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보 도 시 점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883개항살롱, ‘연말 작은 음악회’

- 6주간 진행된 원데이 클래스 ‘푹푹한 나의 클래식’ 의 마지막 여정 발표회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이음1977에서 연말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음악회는 1883개항살롱(개항장 및 내항 현장지원센터)의 원데이 클래스 ‘푹푹한 나의 클래식’ 의 6주간 여정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참여자들의 발표회로 진행됐다.

‘푹푹한 나의 클래식’ 은 평소에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클래식을 소프라노 박지은 강사의 재미난 해설로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이 진행됐다. 그동안 우리 귀에 익숙한 이탈리아 가곡을 배우고, 배운 곡 중 한 곡을 선택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이 발표한 곡은 이탈리아 가곡 디 카푸아의 ‘오 나의 태양’, 헨델의 ‘울게 하소서’, 조르다니의 ‘오 내 사랑’,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으로, 멋진 개항기 의상을 입고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행사가 진행된 이음1977은 iH(인천도시공사)의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 사업 1호로서, 한국 현대 건축가 1세대인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곳이다. 인천 내향이 내려다보이는 큰 창은 연말 작은 음악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류윤기 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1883개항살롱은 올 한해 개항장과 관련된 테마들을 선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푹푹한 나의 클래식’을 통해 일상에서 자주 접하기 어려웠던 클래식 체험과 연말 작은 음악회로 참여자분들께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해 드려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1883개항살롱의 원데이 클래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1883개항살롱에서 운영 중인 인스타그램(@1883gaehangsalon), 페이스북 등의 누리 소통망(SNS)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연말 작은 음악회’ 행사사진

